

雙花曲과 길군악(折花)*

黃 俊 淵

(서울대 국악과 교수)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선율 비교 |
| II. 장고형과 박자 | V. 맺음말 |
| III. 악곡구조 | |

I. 머리말

한글가사로 된 雙花店은 『大樂後譜』에, 한문가사로 된 雙花曲은 『時用鄉樂譜』에 각각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승되는 전통음악에는 그러한 제목의 악곡이 없다. 그리고 길군악(일명 折花)은 국립국악원에 전승되어 온 전통 기악곡의 하나이다.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은 모두다 鄉樂曲으로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듯하여 주목된다. 즉 고악보에 나타난 쌍화점과 현전의 길군악이 수백년이란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그 악곡구조가 서로 상통하는 면을 가진 듯 하다. 또 쌍화점과 길군악은 그 박자와 장단체계가 각각 매우 독특하다. 쌍화점은 그 기보방식이 보편적인 고악보의 6대장 16정간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라서 그 박자나 장단이 特異하며, 한편으로 현전의 길군악은 특이하게 8井間이 한장단의 단위로 된 음악이어서 그 박자가 전통음악의 어떤 악곡과도 다른 특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쌍화점과 길군악은 그 박자가 특이한 점에서도 닮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바로 숨겨진 이 두 악곡간의 필연적 연관성에서 기인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1990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금으로 연구되었음.

이 글은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을 연결하여 숨겨진 이 악곡들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려는 목적에서 쓰였다. 즉 고악보에 전하는 쌍화점 또는 쌍화곡과 현전의 길군악이 서로 연관된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비교 분석고찰해 보려한다.

II. 장고형과 박자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을 비교하려면 각 악곡간에 상응하는 선율 비교단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이미 밝혀졌듯이¹⁾ 쌍화점과 쌍화곡의 관계는 그 정간보의 길이가 1대 2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의 5·3·5·3정간과 후자의 8·8·8·8정간이 서로 상응하는 것임을 알지만, 이 두 악곡과 길군악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쌍화점과 쌍화곡은 다행히 그 장고형을 기록하였다. 때문에 그 각각의 장고형을 분석하면, 현전의 길군악 장단의 장고형과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장고형의 비교를 통하여 세 악곡간의 정간기보 체계 및 박자의 상호 연관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쌍화점의 장고형

『대악후보』의 쌍화점의 정간보는 아주 특이하다. 악보의 제1강과 제4강의 둘째, 셋째정간에는 음표가 기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2강과 제3강 그리고 제5강과 제6강에는 매정간에 거의 음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특이하며, 또한 사설붙임에서도 이 악보는 여느 옛 한글사설 향악곡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기보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이 악보에 나타난 장고형의 기보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쌍화점의 장고형도 상당히 복잡한 모양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장고형은 여타의 악곡에는 보이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먼저 3행단위로 반복되는 장고형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李惠求, “雙花店—大樂後譜와 時用鄉樂譜의 比較—,” 『韓國音樂序說』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125-137쪽.

<악보 1> 쌍화점의 장고형

1	고				고		요	쌍			고	요	쌍	고	편		
2	쌍				쌍	쌍	고	요	고			편	고	쌍	고	편	
3	고				편	고	쌍	고	요	고			편	고	쌍	고	편

쌍화점의 장고형과 그것이 기록된 정간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장고형이 동일함에도 그 기보된 정간의 위치가 달라지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1행 제4·5강에 기록된 ‘쌍고요’는 3·1·1정간에 차례로 기록되었으나 그것이 반복되는 제10·13·16행등에서는 같은 장고점이 2·2·1정간에 나타났고, 또한 제18·25행에서는 2·1·2정간에 쓰였다. 정리하면 다음 악보와 같다.

<악보 2> 쌍화점 제4·5강의 장고점 ‘쌍고요’ 기보

제 1행	쌍			고	요
제10행	쌍		고		요
제19행	쌍		고	요	

이러한 例는 또 제2행의 제4·5강과 제3행의 제1·2강에 쓰이는 장고점 ‘고편고’의 반복에서도 발견된다. 행에 따라서 이 ‘고편고’도 그 정간기보가 ‘쌍고요’의 경우처럼 들쭉날쭉하다. 그러므로 이 쌍화점의 장고형은 본래 등잇가의 장고점 셋이 기본단위이고, 그것이 넷 또는 열둘로 모인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런지 궁금하다. 참고로 쌍화점의 장고점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 쌍화점의 장고점

- 1 고— 고—요 쌍고요 쌍고편
- 2 쌍—쌍 쌍고요 고편고 쌍고편
- 3 고편고 쌍고요 고편고 쌍고편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속단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숙제로 미루겠다. 그러나 일단 <악보 3>처럼 장고점을 나열하고 보면 각 3행의 장고점이 서로 비슷하게 짜여진 듯 하여 눈길을 끈다. 즉 3행가운데 제2행과 제3행은 장고점의 순서가 머리에서만 다르고(‘쌍-쌍’과 ‘고편고’) 그 이하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각 3행의 끝에는 장고점이 일정하게 ‘쌍고편’으로 되었다.

또 세개씩 짝을 이룬 쌍화점 장고형의 각 둘째와 셋째 장고점(예를들면 ‘고편고’의 ‘편고’)들은 상대적으로 첫번째 쓰인 장고점(‘고’)보다 중요성이 적은 간점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 장고점들이 반복될 때 그 정간기보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개씩 짝을 이룬 장고점들의 첫 장고점을 원점으로 보겠고, 그것은 모두 ‘고’나 ‘쌍’으로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상 살펴본 쌍화점의 장고형을 원점이라고 믿어지는 장고점만 간추려서 적으면 다음과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악보 4> 쌍화점의 장고형 원점

1	고					고				쌍						쌍			
2	쌍					쌍				고						쌍			
3	고					쌍				고						쌍			

2. 쌍화곡의 장고형

쌍화곡의 장고형은 다음처럼 간단명료하다. 즉 2행에 장고점이 네개 들어가는 형태로서 ‘고요편쌍’이라는 장고점의 기본 타법을 하나씩 차례로 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미 밝혀졌듯이 이 16정간 2행의 쌍화곡 장고형은 16정간 3행의 쌍화점 장고형의 첫 1행의 장고형에 상응한다.

<악보 5> 쌍화곡의 장고형

고										요									
편										쌍									

3. 길군악의 장고형

길군악은 현행 정간보에 1행 8정간으로 기록된 것처럼 1정간이 1박일때 8박의 악곡임이 분명한데,²⁾ 그러한 박절법은 현전의 우리 전통음악에서 흔한 것이 아니고 거의 유일한 것이다.³⁾ 다만 장고점에 ‘쌍’이 연속되므로 현전 취타의 장고점과 유사한데, 실제 장고형에서는 같지 않다. 길군악의 매우 독특한 장고형은 다음과 같다.

〈악보 6〉 길군악의 장고형

쌍		쌍		쌍		요	
쌍	요	고	편	(4장)			

‘쌍’이 연속적으로 쓰이는 길군악의 장단은 그 외에도 두가지 특색이 있다. 즉 그 하나는 본래의 8박장단이 4장에 이르러서 4박장단으로 바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장고점이 단지 네개로만 된 점이다. 따라서 이 현전 길군악의 장고형은 2행이 모여서 한 장단을 이루고 한 장단에 장고점이 네개 들어가는 예전의 쌍화곡의 장고형을 연상케 한다. 그러므로, 2·2·2·2정간에 붙여지는 균박장단인 길군악 장고형은 결국 8·8·8·8정간에 붙여진 균박장단인 쌍화곡의 장고형과 상통한다 하겠다(만약 2·2정간의 음악의 템포가 느리고 8·8정간의 음악의 템포가 다소 빠른 것이라면 결국 실제 두 음악의 리듬은 상당히 근접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쌍화점과 쌍화곡 길군악 三者의 장고형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三者의 장고형은 일견 서로 무관한 듯 하지만 서로 상통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 원점 장고점이 유사한데, 쌍화점의 ‘고고쌍쌍’과 쌍화곡의

- 2) 이왕직아악부에서 펴낸 『朝鮮音樂書』樂曲篇에는 길군악이 “折花 俗名 路軍樂… 全刻數는 三十이고 一刻은 八拍이다…”라고 기록되었다(국립국악원 자료실 소장 필사본, 연대미상).
- 3) 『三竹琴譜』에 기록된 打鈴은 “每八間 爲一脚”이라 하여 그 음악이 일견 8박자로 된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음악이 현전의 타령처럼 4박자(혹은 12박자)의 악곡이어서 길군악과는 박자가 다르다. 즉 『三竹琴譜』의 打鈴 악보는 근세 이왕직아악부의 정간악보처럼 2井1拍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고요편쌍’ 그리고 길군악의 ‘쌍쌍쌍요’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세 악곡의 박자 상응관계가 드러나서 구조와 선율 비교도 가능케 되었다.

〈악보 7〉 쌍화점 쌍화곡 길군악의 장고형 비교

	5				3				5				3			
쌍화점	고				고				쌍				쌍			
	8				8				8				8			
쌍화곡	고				요				편				쌍			
	2				2				2				2			
길군악	쌍				쌍				쌍				요			

Ⅲ. 악곡구조

쌍화점 및 쌍화곡과 현전의 길군악의 악곡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악곡에 나타난 章節구분과 餘音, 종지선율, 선율반복등을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악곡구조와 선율의 비교를 위한 각 악곡의 최소 선율단위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상응하는 쌍화점의 1행, 쌍화곡의 2행, 길군악의 8정간 1행이다.

먼저 『대악후보』의 쌍화점을 살펴보면 그것은 전체 26행의 길이로 되었으며, 악보에는 세개의 여음과 함께 악곡이 3절로 이미 구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쌍화점의 기본 악곡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 쌍화점의 구조

절	행	길 이	비 고
1	제 1행 - 제14행 (여음 13-14)	14행	A
2	제15행 - 제21행 (여음 21)	7행	B
3	제22행 - 제26행 (여음 25-26)	5행	C

4) 옛 악보에 나타난 長型의 장고형이 현전의 악곡에서는 대개 짧은 장고형으로 변화되는 例를 慢大葉과 數大葉, 北殿과 時調의 장고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출고, “시조와 북전,” 『세종학연구』창간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한편 『시용향악보』의 쌍화곡에는 악절의 구분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체 52행으로 된 악곡의 선율에는 사실이 붙여지지 않은 여음이 세 곳 보인다. 그러므로 쌍화곡은 쌍화점처럼 역시 악곡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쌍화곡의 구조

절	행	길 이	비 고
1	제 1행 - 제28행 (여음 25-28)	28행	A
2	제29행 - 제41행 (여음 41)	13행	B
3	제42행 - 제52행 (여음 49-52)	11행	C

한편 현전의 길군악은 약간 복잡한 장구성으로 되었다. 즉 전체 6개 章으로 되었고 특이하게 3장과 4장 사이에 돌장1과 돌장2라는 章도 있다. 그런데 이 두개의 돌장은 각각 1장과 2장의 반복이다.⁵⁾ 또, 4장은 길이가 짧지만 앞부분과 달리 4박 장 단형을 쓰고 선율도 變調되는 章이다. 따라서 크게 나누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그것은 즉 돌장 앞부분과 돌장, 그리고 돌장 뒷부분 등의 세 부분이 될 것이다.

〈표 3〉 길군악의 구조

절	행	길 이	비 고
1	제 1행 - 제15행 (여음 1·2·3장)	15행	A
2	제16행 - 제26행 (돌장1 돌장)	11행	B
3	제27행 - 끝 (4장)	3.5행	C

이상과 같이 정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三者의 악곡

5) 현전 길군악의 분장법은 아래와 같다.

1장. 5행	제 1행 - 제 5행	돌장1. 5행	제16행 - 제20행
2장. 6행	제16행 - 제11행	돌장2. 6행	제21행 - 제26행
3장. 4행	제12행 - 제15행	4장. 3.5행	제27행 - 33행 (제27장단이하 반장단)

구조의 유사성이 드러난다. 즉 세 악곡은 다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악곡이 나누어지며, 각 악곡의 첫째부분(1절) A의 선율들은 각각 그 길이가 가장 길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세 악곡의 길이가 가장 긴 1절의 구조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쌍화점의 1(A부분) 14행의 사실과 선율을 자세히 보면 그 세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처럼 여음을 제외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표 4〉 쌍화점 1절(A)의 구조

행	1-5	6-8	9-12	13-14
길이	5	3	4	2
선율	a	b	c	(여음)

그 이유는 우선 제 5행의 끝에서 처음으로 선율에 낮은 下二가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그 사실도 단락을 이루는데 그것은 “다로러니”라는 口音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또 제 8행에도 두번째로 下二가 나오고 역시 “더러등성 다로러”라는 구음이 붙여졌다.⁶⁾ 그리고 또한 실제로 b로 표시된 제6~8행의 선율은 a의 선율중 제3~5행의 반복이다.

다음으로 쌍화곡의 A부분 즉 제 1행부터 제 28행까지의 선율을 살펴보면, 이 곡도 역시 여음 4행을 제외한 전 24행이 다시 세개의 단락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제 1행부터 제10행까지의 선율중에서, 제 5행부터 제10행까지의 선율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반복되고, 제10행(제16행)의 끝에는 앞에 없는 下二의 음이 처음 쓰였다. 그러므로 다음처럼 쌍화곡의 제 1절 선율은 여음을 제외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겠다.

〈표 5〉 쌍화곡 1절(A)의 구조

행	1-10	11-16	17-24	25-28
길이	10	6	8	4
선율	a	b	c	(여음)

6) 李惠求는 쌍화점의 1절을 사실의 구절에 의하여 5구로 나누었지만(“韓國音樂의 構造的 特徵,” 『韓國音樂論集』 25~26쪽), 그 음악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쌍화점과 쌍화곡의 1절(A)의 세부구조는 나아가서 현전 길군악의 핵심선율인 1장 2장 3장까지의 15행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세 악곡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 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쌍화점과 쌍화곡의 1절(A)의 세부 단락 a b c는 각각 길군악의 1장 2장 3장의 단락과 유사한 것이 드러난다. 다만 길군악의 2장이 3행 더 길어서 조금 다르다.

〈표 6〉 쌍화점 쌍화곡 길군악의 1절(A)의 구조비교

	a(1장)	b(2장)	c(3장)
쌍 화 점	5행	3행	4행
쌍 화 곡	10행	6행	8행
길 군 악	5행	6행	4행

4. 선율비교

쌍화점과 쌍화곡은 모두 五音略譜로 기록되었고, 『시용향악보』는 쌍화곡을 平調라 하였다. 그리고 현전 길군악의 樂調는 太簇宮의 평조라 한다.⁷⁾ 따라서 쌍화점과 쌍화곡을 길군악의 선율과 비교하려면 일단 太簇宮의 평조선율로 해석함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피리보에 나타난 길군악의 출현음을 오음약보에 맞추어 정리하면 그것은 옛 평조음계와 조금 다르다(현전 길군악의 평조의 구성음 중 黃鍾은 應鍾이 왜곡된 것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글에서는 쌍화점과 쌍화곡을 본래의 평조음계로 해석하고 길군악의 출현음을 나타난대로 두고 서로 비교해보겠다(비교약보 참조).

〈표 7〉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음계비교(太簇宮)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쌍화곡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
길군악	—	—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ㅅ

7) 張師勛, “길군樂考,” 『國樂論攷』(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 262-296쪽.

한편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선율비교의 기본 선율단위(길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즉 쌍화점의 5·3·5·3정간의 선율은 쌍화곡의 8·8·8·8정간의 선율에 상응하고, 나아가서 길군악의 2·2·2·2정간의 선율에 상응할 것이다.

1. 쌍화점의 제1-5행 및 쌍화곡의 제1-10행(a)과 길군악의 1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쌍화점의 제 1 행부터 제 5 행까지와 쌍화곡의 첫 부분 10행은 현전 길군악의 1장 5각까지에 상응한다.

새 악곡의 선율비교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현전 길군악의 피리보에 기록된 첫 행의 출현음을 모두 五音略譜로 바꾸고, 그 선율선을 쌍화점 및 쌍화곡의 선율선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 8〉 쌍화점, 쌍화곡의 길군악의 머리선율 선율선 비교

쌍화점	宮 宮 上一(5)	上二上二上一(3)	上一上三上二(5)	上一上一上二(3)
쌍화곡	宮(8)	上二(8)	上二(8)	上一(8)
길군악	宮上一宮上一(2)	上二(2)	上二上一宮上一(2)	上二上一宮(2)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머리선율(첫장단)의 선율선을 위와 같이 오음약보로 비교하면, 三者의 선율관계가 잘 드러난다. 즉 5정간 또는 3정간에 일정하게 붙여진 쌍화점의 출현음 세개가 각 8정간에 붙여진 쌍화곡의 출현음 하나와 상응하고(예를 들면 쌍화점의 宮 宮 上一과 쌍화곡의 宮), 또 이 쌍화곡의 각 출현음은 다시 매 2 정간에 붙여지는 길군악의 출현음들과 대개 상응함(예를 들어 쌍화곡의 宮과 길군악의 宮上一 宮 上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三者의 선율선 비교를 통하여 먼저 확인되는 사실은 쌍화곡의 선율이 쌍화점과 길군악의 선율을 연결하는 중간 선율고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출현음수에 있어서 쌍화점과 길군악이 쌍화곡의 그것보다 많아서, 일견 쌍화곡보다 쌍화점의 선율이 길군악의 선율과 관련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쌍화점보다 쌍화곡의 선율이 길군악의 그것에 더 근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쌍화점보다 쌍화곡의 선율이 길군악의 선율에 더 가까운 것이란 사실은, 다음 악

보처럼 8정간의 머리마다 붙여지는 쌍화곡의 각 출현음들이 거의 반복되는 동일 리듬형의 선율인 길군악의 매 2정간의 첫음들과 대부분 서로 같은 데에서도 확인 된다.

<악보 9> 쌍화곡과 길군악의 머리선을 첫음비교

쌍화곡	宮	上二	上二	上一
길군악	宮	上二	上二	上一

그러므로 쌍화곡의 출현음에 상응하는 현전 길군악의 피리선율 중에 매 2정간의 첫음 즉 장고점이 붙여지는 음은 대개 그 선율의 원점이고 여타 이어지는 두세개의 음들은 間音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이 쌍화곡이 세 악곡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선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三者의 선율을 번거롭게 모두 거론할 필요없이 쌍화곡과 길군악 두 악곡의 선율비교로 충분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의 말미에 정리된 선율비교 오선악보(이하 ‘악보’라 함)를 통하여 쌍화곡과 길군악의 선율을 차례로 비교해 보자.

악보 제 1 행(이하 쌍화곡은 쌍화점의 행수로 표시함)의 쌍화곡과 길군악 선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점선율이 서로 상응한다. 다만 끝부분인 <라>(이하 쌍화점의 1행의 5·3·5·3정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차례로 <가나다라>로 기술함)에서 약간 어긋난다. 그렇지만 길군악 <라>의 첫음 上二는 쌍화곡 <다>의 음 上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오는 길군악 <라>의 둘째음 上一이 원점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 쌍화곡과 길군악은 <라>에서도 선율이 상응한다고 본다.

악보 제 2 행에서 쌍화곡과 길군악의 선율은 일견 비슷하면서도 서로 조금씩 출현음이 어긋난다. 실제로, 쌍화점과 쌍화곡의 제 2 행은 제 1 행의 반복이지만 길군악의 제 2 행은 그 제 1 행과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대체적인 선율선은 쌍화곡과 길군악이 무관하지 않게 나타난다. 즉 <가>에서는 쌍화곡이 宮인데 길군악은 下一과 上一로 나타나서 비슷하고, 또 <나>에서는 上二로 서로 같다. 또한 쌍화곡 <라>의 上

一은 길군악의 <다>끝에 나오는 上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악보 제 3 행에서는 길군악의 선율이 上二로 시작되지만 대체로 <가>와 <나> 그리고 <다>의 선율에서 두 악곡 선율이 서로 상응한다. 또 쌍화곡과 길군악은 <라>에서 각각 ㄱ과 上二 下一로 선율이 어긋나지만, 쌍화점에 下一이 있어서 두 선율의 연관성을 알게한다.

악보 제4행은 쌍화곡 선율에 上三이 처음 나와서 선율이 가장 높은 대목인데, 길군악의 이 대목 선율도 아주 높게 청황종까지 올라간다. 그러므로 악보 제4행의 두 선율이 유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쌍화곡 <나>의 上三이 길군악에서는 <가>에 미리 나오고, <다>와 <라>의 선율은 서로 같은 음으로 되었다.

악보 제5행의 쌍화곡 선율은 ㄱ 上一 ㄱ 下一 下二의 대체적인 하강선율인데, 1장의 끝행인 길군악 선율도 上一에서 시작하여 점차 下三까지 하강한다. 즉 쌍화곡 <나>의 上一에 해당하는 음이 길군악은 <가>에서 미리 나오지만, 두 곡의 선율이 <나>에서 ㄱ과 <다>에서 下一을 거쳐 <라>의 下二나 下三까지 하강하여 서로 상응한다. 다만 길군악의 끝음이 下二대신 下三으로 대치되었다.

이상으로 현전 길군악의 1장 선율은 쌍화곡의 제1행부터 제10행(악보 제1-5행)의 선율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쌍화점의 제6-8행 및 쌍화곡의 제11-16행(b)과 길군악의 2장

제1절의 둘째단락은 쌍화점과 쌍화곡이 각각 3행과 6행의 길이로 되었고 길군악의 그것은 6행으로 되어서 3행이나 더 길다. 따라서 길군악의 2장 6행가운데 3행은 본래에 없던 선율이 후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악보 제6·7·8행의 쌍화곡은 악보 제3·4·5행의 완전한 반복 선율이다(『시용향악보』에서는 제5-10행과 제11-16행). 그러므로 우선 길군악의 2장 선율 6행중에서 앞에 이미 나왔던 선율을 조사하면 제9·10·11행까지의 3행이 1장의 제3·4·5행까지의 3행 선율을 거의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다만 제9행의 <가나> 즉 前半의 선율이 제3행의 전반선율과 약간 다르다). 따라서 악보 제6·7·8행의 쌍화곡에 해당하는 길군악의 선율은 그 2장의 첫 3행(제6·7·8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9·10·11행이 될 것이다.

악보 제6행의 쌍화곡은 제3행 선율의 완전한 반복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길군악의 제9행은 제3행의 완전반복이 아니다. 즉 제9행의 <다라>에서는 그 제3행 선율을 반복하였지만 <가나>에서는 선율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 달라진 길군악 제9행 <가나>의 선율에도 上一과 上二가 주로 쓰여서 그 선율 윤곽이 쌍화곡 선율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7행과 제8행의 쌍화곡의 선율이 제10행과 제11행의 길군악 선율과 유관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즉 쌍화곡 제4·5행과 길군악의 제4·5행).

쌍화곡의 둘째단락보다 길군악의 2장은 그 길이가 길어졌지만(길군악의 2장 앞부분, 즉 제6·7·8행은 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선율이 쌍화곡의 선율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3. 쌍화곡의 제9-12행 및 쌍화곡의 제17-24행(c)과 길군악의 3장

쌍화곡 제1절의 셋째단락과 길군악의 3장은 길이에 있어서 4행으로 일치된다. 그러나 일견 쌍화곡의 선율은 낮은 음역의 음이 많이 쓰이고 길군악의 선율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높게 나타나서 잘 상응하지 않는다.

악보 제9행의 쌍화곡 <가나>의 선율은 下一과 冪으로 되었으나 길군악의 해당부분(제12행)은 선율이 上一과 上二로 되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라>의 쌍화곡의 선율 冪 上一 冪이 길군악의 <다라>에도 나타나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 길군악 3장의 첫행은 위에서 추가된 선율일것으로 고찰된 길군악 2장의 첫행(제6행)을 반복하는 선율이다. 따라서 쌍화곡과 길군악의 <가나>선율이 상응하지 않는 것은 후에 길군악이 변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악보 제10행의 쌍화곡은 거의 下二로 된 선율이다. 그리고 길군악은 上二에서 下一까지 선율이 많이 움직인다. 때문에 두 선율의 직접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三竹琴譜』의 路軍樂의 해당선율은 上二(징)의 연속으로 선율이 나타난다.⁸⁾ 그러므로 추측컨대, 음역이 낮은 쌍화곡의 선율을 올려서(쇠는 주법) 변주한 결과로 현전

8) 『三竹琴譜』의 路軍樂은 실제 거문고 6괘주법으로 되어서, 현전 길군악보다 그 冪이 장2도 높다(張師助, 위의 글 악보참조). 그러므로 이 路軍樂을 장2도 낮게 移調하면 '악보'의 쌍화곡 및 길군악과 선율비교가 용이하다.

길군악의 제13행 선율이 쌍화곡의 제10행 선율과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악보 제11행의 쌍화곡 선율과 그에 해당되는 길군악의 선율도 일견 많이 다르다. 길군악의 <다라>에서는 피리선율이 쉰다. 그러나 역시 『三竹琴譜』 路軍樂의 해당선율을 살펴보면 그것이 길군악의 피리선율과는 달리 쌍화곡의 선율과 아주 비슷하여 (上二 上一 宮과 정 도랑 당)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악보 제12행의 쌍화곡 선율과 현전의 길군악 선율도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路軍樂의 선율이 쌍화곡의 선율처럼 하강 중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전의 길군악 선율이 변주된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제11행과 제12행의 쌍화곡 선율과 길군악의 제14행 및 제15행 선율은 다르지만, 路軍樂의 선율에 의하여 그것이 서로 유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⁹⁾

요컨대 현전 길군악의 3장도 『三竹琴譜』의 路軍樂을 통하여 쌍화곡의 선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상의 선율비교로 현전의 길군악 선율은 쌍화곡에서 비롯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피리선율은 쌍화곡의 단순한 선율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상투적인 리듬을 가진 독특한 선율로 변화 발전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쌍화점 및 쌍화곡과 길군악의 선율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쌍화점 쌍화곡 길군악의 선율관계

	선 율 관 계 (행)											
쌍화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쌍화곡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길군악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

9) 『三竹琴譜』 路軍樂의 마지막 선율 '덩 덩더덩'을 張師勛은 그 앞의 '둥'보다 장2도 높게 역보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둥'보다 장2도 낮게 해석되어야 한다.

V. 맺음말

『대악후보』의 쌍화점 및 『시용향악보』의 쌍화곡과 현전의 길군악(折花)은 時代를 隔한 악곡이고 그 제목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쌍화점은 여느 16정간보에 기보된 악곡과 달리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정간보에 기보되었고, 현전의 길군악도 유일하게 8정간의 악보로 기보된 곡이어서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고 비교 분석고찰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전의 길군악은 다른아닌 『시용향악보』의 쌍화곡과 관련있는 곡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현전의 길군악은 『대악후보』의 쌍화점과도 연관된 악곡이라 하겠다. 환언하면, 쌍화점에서 쌍화곡이 나왔고, 다시 쌍화곡에서 길군악이 나온 셈이다.

둘째, 따라서 현전 길군악의 6개 章으로 된 악곡형식은 쌍화점과 쌍화곡의 악곡 구조와 깊이 연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군악의 1·2·3장 15행의 선율 중 12행이 바로 쌍화곡의 제1행부터 제24행까지의 선율에서 나온 것이며, 이어지는 돌장1과 돌장2는 각각 1장과 2장의 반복이어서, 결국 길군악의 대부분의 선율이 쌍화곡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길군악의 짧은 4장은 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오늘날의 길군악의 독특한 8정간의 기보체계와 박자는 쌍화곡의 16정간 2행의 기보체계와 박자를 이어받은 것이다. 즉 길군악의 1행 2·2·2·2정간의 박자와 리듬은 쌍화곡의 2행 8·8·8·8정간의 박자와 리듬을 계승하였다.

넷째, 그러므로 현전 길군악의 장단은 또한 쌍화곡의 장단을 이어받은 것이다. 즉, 길군악의 균박 장고형 ‘쌍쌍쌍요’는 바로 쌍화곡의 균박 장고형 ‘고요편쌍’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쌍화점의 장고형과도 유관한 것이다.

이로써 쌍화점 및 쌍화곡과 현전 길군악의 관계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현전의 길군악의 음악구조와 장단 및 그 선율 형성에 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쌍화곡과 같은 옛악곡 기록의 해석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쌍화점의 정간기보법이나 그 박자등에 대한 의문은 숙제로 남았다.

Ssanghwagok and Kilgunak

Hwang, Jun-Yon

Professor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usic of *Ssanghwajom* 雙花店 in *Taeak hubo* 「大樂後譜」, *Ssanghwagok* 雙花曲 in *Siyong hyangakbo* 「時用鄉樂譜」 and the existing music *Kilgunak* 衿軍樂 all have different titles as well as having different time periods from which they come. Also, the notation system of *Ssanghwajom*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ieces that use the same 16 mensural notation system 井間譜. The *Kilgunak* also uses a different notation system in that it is the only piece to use an 8 mensural notation system. Because of this, I have come to compare and research these two pieces. The following are my conclusions.

First, I have found that the existing *Kilgunak* is much the same piece as *Siyong hyangakbo's Ssanghwagok*. So the *Kilgunak* must also have some relation to *Taeak hubo's Ssanghwajom*. That is to say, from *Ssanghwajom* come *Ssanghwagok*, and from *Ssanghwagok* came the *Kilgunak*.

Second, as such, the *Kilgunak* which is divided into 6 sections is related to the form of both *Ssanhwajom* and *Ssanghwagok*. In specific, of *Kilgunak's* 15 lines 行 of section 章 1, 2 and 3, the 12 lines came directly from the first 24 lines of *Ssanhwagok*. Also, the continued sections sub 들章 1 and sub 2 are the repetitions of sections 1 and 2. So, one can conclude that most of *Kilgunak's* melodic lines have very much in common with those of *Ssanghwagok*. And the short 4th section found in *Kilgunak* is concluded to have been added at a later date.

Third, the odd 8 beat notation system 八井一行 and rhythm of *Kilgunak* has been

derived from the 16 beat 2 line notation system 十六井二行 and rhythm of *Ssanghwagok*. That is to say, one line 2.2.2.2 beat 井 system and rhythm of *Kilgunak* came from the 2 line 8.8.8.8 beat system and rhythm of the *Ssanghwagok*.

Fourth, with the above, one can say that the *Kilgunak* inherited the rhythmic patterns of *Ssanghwagok*. In other words, the “*ssang ssang ssang yo*” 雙雙雙搖 *chango* 杖鼓 pattern of *Kilgunak* is related to the “*ko yo pyon ssang*” 鼓搖鞭雙 *chango* pattern of *Ssanghwagok*, as well as this being related to the *chango* pattern of *Ssanghwajom*.

〈쌍화점 쌍화곡 길군악의 선율비교〉

쌍화점	1 <가>	<나>	<다>	<라>
	상	화	덤	에
			상	화
			사	라
쌍화곡	宮	上二	上二	上一
길군악	1 (1장)			
	宮	上二	上二	上二 上一
쌍화점	2			
	가	고	신	너
			위	위
			아	비
쌍화곡	宮	上二	上二	上一
길군악	2			
	下- 上一	上二		上一
쌍화점	3			
	내	손	목	음
			주	여
			이	(下-) 다
쌍화곡	宮	上一 上二	上一	宮 宮
길군악	3			
	上二		上二	下-
쌍화점	4			
	이	말	숨	이
			이	.
			덤	빛
			피	
쌍화곡	上一	上三	上二	上一 上二
길군악	4			
	上三	上二	上二	上一

5

쌍화점 나 명 태 명 다 본 리 니

쌍화곡

길군악

上- 宮 下- 下二

上- 宮 下- 下三

6 (2장)

길군악

7

길군악

8

길군악

6

쌍화점 죠 고 맛 감 샷 기 광 대

쌍화곡

길군악

宮 上- 上二 上- 宮 宮

上- 上二 上-

7

쌍화점 네 마 리 라 호 리 라 더 러

쌍화곡

길군악

上- 上三 上二 上- 上二

10

8

성화점
 등 성 다 로 러 기 자 리 예

성화곡
 宮 上- 宮 下- 下二

길군악
 11

9

성화점
 나 도 자 라 가 리 리 위 위

성화곡
 下- 宮 下- 宮 上- 宮

로군악
 당 당 도 랑 징 쉼 지 임 도 랑 동 징

길군악
 12 (3장)
 上- 上二 宮上- 宮

10

성화점
 다 로 러 거 디 러 거 다 룡 디

성화곡
 下二 下二 下- 下二 下三 下二 下二

로군악
 지 로 징 지 로 징 동 지 로 징 쉼

길군악
 13
 上二 下-

11

쌍화점
다 로 러 귀 잔 더 又 치

쌍화곡
宮 上一 上二 上一 宮 上一 宮 下一

로관악
지 로 정 지 임 도 랑 당 당 당

길관악
14
下二

12

쌍화점
뎌 거 츠 니 입 다

쌍화곡
下二 下一 宮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

로관악
동 당 동 당 당 더 당

길관악
15
上二